

# 출마의 변

존경하는 한국상담심리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차차기 한국상담심리학회 학회장 후보 송미경 입니다.

학부, 대학원에서 심리학을 전공하고 상담심리학회에 가입, 학회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한지 어느새 30여년이 되어갑니다. 그동안 상담심리사 1급 자격을 취득, 수퍼바이저로 활동하는 한편 학회 운영위원회에서 부학회장, 총무이사, 자격검정위원장, 상별 및 윤리위원장 등의 활동을 꾸준히 해오면서 스스로도 성장하고 학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부족하지만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한국상담심리학회와 학회에서 맺은 선후배, 동료 상담자들에게 받은 사랑에 보답하고자 조심스럽게 학회장 출마의 변으로 인사드립니다. 제가 학회장이 된다면 다음 세 가지 목표에 중점을 두고 학회 운영에 힘쓰고자 합니다.

**첫째, 학회와 상담자의 전문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우리 학회는 1964년 한국심리학회 산하 분과학회로 발족하여 오늘날 상담영역에서 명실공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통성 있는 학회로 성장하였고 그 명성에 걸맞게 배출된 상담전문가들은 각급 학교의 상담실, 상담센터, 국공립 기관 및 기업 상담실 등에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임기동안 학회본연의 선도적 학술활동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우리 학회의 자격증이 상담영역에서 전문성과 차별성이 강화된 독보적인 자격증이 될 수 있도록 학회 차원에서 보다 다양하고 세분화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일에 주력하겠습니다.

학회원 여러분의 수련 활동을 체계화하고 학술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대학원 교육과정 인증작업」을 추진하고, 지금까지 개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수련과정을 학회의 제도 안으로 끌어들이어 수련과정을 체계화함과 동시에 질 높은 교육과 연수를 저렴하게 제공받게 함으로써 학회원 여러분들의 교육비용 절감을 돕

고자 합니다.

학회원 여러분의 상담영역별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학회 회원들의 상담영역별 전문성을 공고히 하면서 더 나아가 우리 학회 자격증에 세부상담 전문자격을 인정하고 명시하는 작업을 추진하는 기초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외에도 학회원들의 연구 역량강화, 후학세대 양성 지원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전개하겠습니다.

**둘째, 학회와 상담자의 책무성을 강조하면서 윤리의식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국민들의 정신건강을 책임지는 전문가 집단인 우리 학회에서 학회원들의 윤리의식 함양과 고취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 윤리는 개개인의 성향과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없는 직업적 정체성이자 소명이며, 기본적인 사회적 책임감이자 의무사항입니다. 점차 윤리 문제에 관한 문의와 제보가 많아지고 있는 것 역시 현 시점에서 우리들에게 높은 윤리의식을 요구하는 반증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미 우리 학회에서는 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윤리강령 재정비 및 보수교육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계승하여 전문가 자격 취득시나 취득 후 학회원들의 윤리교육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일에 박차를 가하여 사회적 책무성을 다하는 학회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학회의 위상을 높이고 상담자의 안정적 지위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상담자가 제대로 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직능단체로서의 학회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전문성을 증진시키고 책무성을 지켜나가는 상담자라면 당연히 제대로 된 대우를 받을 수 있어야 하지만 아직 우리 사회는 이러한 장치가 되어 있지 못합니다. 심리적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나날이 늘어가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안문제에 대해 학회 차원의 대응 및 정책제안을 함과 동시에 우리 학회원들의 사회공헌 범위를 확대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우리 학회와 학회원들의 상담활동, 학술활동 등 우수한 성취를 널리 알리는 노력과 함께 자격증의 안정적 지위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한국상담심리학회가 한국 사회에서 사랑과 존경을 받는 학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 학회는 수많은 원로, 선배 회원님들이 노력해온 일들을 보다 정비하고 더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학회의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신 역대회장님들의 뜻을 이어 받아 학회의 전통을 계승하면서 혁신을 추구하는 학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11월

한국상담심리학회장 후보 송미경 배상